광주신세계 “금호월드 매입·공동개발 없다” 공식 표명

금호월드 측 제안 거절…광주시와 ‘3자 협의체’ 구성 나설 듯
진통 예상 속 100억 상생기금 제시 “광주시 적극 중재 나서야”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관련해 금호월드 측이 제안한 세 가지 협상안 중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금호월드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호월드 측이 공문을 통해 협상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 “옴짝달싹 못하다 겨우 한 발 내딛게 된 상황”이라며 “속도감이 붙었다고 표현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호월드 같이 구분 소유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재개발 역시 같은 이유”라며 매입해 개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금호월드 측이 제안한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시-광주신세계 3자 협의체 구성’(상생방안) 등 세 가지 안 중 ‘매입’과 ‘공동 재개발’ 등 2가지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지역경제계 안팎에서는 이미 금호월드 측이 제안한 매입과 공동 재개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히 나왔던 게 사실이다. 다만 광주신세계가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금호월드 측은 이마트 광주점과 신관 야외주차장 사이 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입장을 바꾸고 협상에 나서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가 이날 두 가지 협상안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호월드 측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물꼬는 트였지만,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이 대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광주신세계가 제시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크게 ▲광주신세계-금호월드 간 연결통로 ▲공동마케팅 ▲100억원 규모 상생기금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보면 상생기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신세계의 경우에도 상생기금 80억원을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와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동훈 대표는 “상생기금은 전통시장 등 광주지역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상생기금 등을 통한 ‘상생재단’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화점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금호월드 측 민원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좌초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그는 “금호월드 측 민원만 민원이 아니다”라며 “광주신세계 확장을 바라는 민원도 그에 못지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신세계그룹의 임원 인사로 광주신세계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22일 그룹 차원의 내년도 투자심의계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백화점 대표 교체 등을 이유로 연기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공동위원회 구성 등)광주시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연기된 것은 아니다”며 “철저히 그룹 내부 사정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가 확장을 추진 중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은행 “타이거즈 가을 진출 염원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 행사
임직원 가족 등 2300여명 응원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야구 경기에 광주은행 고객 및 임직원 가족 등 약 2300여명을 초청해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광주은행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치열한 순위경쟁을 펼치고 있는 KIA타이거즈를 응원, 가을야구 진출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광주은행 고객 및 임직원들과 열띤 응원을 펼쳤다.

또 이날 경기장 입구에 광주은행 이벤트존을 마련해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룰렛보드 이벤트를 진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전남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지역축제 입장권을 경품으로 전달하는 등 축제를 홍보했다.

특히 고객과 함께하는 행사의 취지에 맞춰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시구를, 김홍균 남선산업㈜ 회장이 고객을 대표해 시타를 했다. 경기 후반에는 관중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총 30명에게 기아타이거즈 모자와 티셔츠를 경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경기에서 나온 홈런은 개당 100만원씩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로 기부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KIA타이거즈와의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을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지역의 문화·체육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그동안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무위기 극복 위해 전기료 정상화 시급”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취임

김동철〈사진〉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영방침을 밝혔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사상 초유 재무위기의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요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및 신기술 생태계 주도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제2 원전 수출 총력 등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자고 했다.

또 김 사장은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재무위기 극복이 필수”라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정상화의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본사조직 축소, 사업소 거점화 및 광역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업무효율 및 고객서비스 제고, 안전최우선 경영 등의 내부혁신과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끝으로 “한전의 모든 임직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혁신의 맨 앞에서 임직원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외 가상자산 ‘베일 벗다’…1천432명 131조원 신고

국세청 2023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개인신고자 1인당 77억 보유
해외금융계좌 총 186조원

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565명은 총 24조3000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388명(43.7%), 금액은 1조9000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000만원), 60대 이상(4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23일 ‘진로·직업체험한마당’ 참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전상철)는 오는 2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최하는 ‘2023 광주 진로·직업체험 한마당’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전남도회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기계설비 분야 진로탐색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역할·규모·취업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과 함께 브로셔 배포 등 산업 홍보에 나선다.

전상철 회장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산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장 초청 중기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세무현장의 목소리 청취, 맞춤형 세정지원 등 열린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양동구 청장을 비롯해 광주국세청 관계자와 임경준 회장 및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전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시 생략 제외와 노란우산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발급서류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광주·전남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세무역량 강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임경준 회장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밀착 세정지원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서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9.74(+0.53)
↓	코스닥	882.72(-1.17)
↑	금리 (국고채 3년)	3.890(+0.003)
↑	환율 (USD)	1330.10(+1.60)